투 빌스, 에이즈 퇴치 전도사

〈빌 클린턴·빌 게이츠〉

'21세기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퇴치를 위해 '투 빌스(Two Bills)'가 나섰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자선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최근 경영 2선 후퇴 계획을 발표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가 그 주인공.

두 사람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막된 '제16회 국제 AIDS회의'에 참석, 원탁토론에서 AIDS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AIDS 퇴치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25년전 아프리카에서 처음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2천500만명이 감염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엄청난 인간의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는 지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HIV 감염자수가 1년에 평균 4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면서 AIDS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여성들에게 HIV 감염 방지약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츠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이츠재단이 지난 1995년 이후 HIV/AIDS 퇴치를 위해 19억달러를 기부했고, 지난 주 'AIDS와 싸우는 글로벌 펀드'에 5억달러를 기부키로 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열손가락 없지만 희망을 봤습니다"

히말라야 가셔브룸Ⅱ 등정 후 광주 도착한 등산인 김 홍 빈 씨

"걷기가 힘들 땐 네발로 기어서 올라간 적도 있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크레바스(crevasse·빙하 사이의 깊은 폭)에 빠져 미끄러질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났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히말라야 가셔브룸Ⅱ(8천035m) 등정에 성공한 김홍빈(43·스포랜드)씨와 자일파트너 김미곤(35·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 광주지사)씨가 15일 밤 10시40분께 광주에 도착했다.

맥킨리 등반 중 동상 걸려 손가락 모두 절단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6천194m) 단독 등반 도중 걸린 동상으로 손가락을 모두 절단한 김씨는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으로 불린다.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지난 1997년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5천642m)에 올라 재기에 성공,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줬다.

15일, 광주에 도착한 후 동료들과 "만세"를 외치는 김씨의 오른쪽 팔에는 15㎝가 족히 넘어보이는 상처가 이번 등반의 어려운 일정을 증명했다. 김씨는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 신발에 달라붙은 눈뭉치 때문에 30m 가량을 미끄러졌고, 밧줄은 순식간에 팔에 화상을 남겼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소독이나 상처 치료도 물론이고요. 어느 순간 고통을 즐기게 된 것 같아요. 상처를 볼 때마다 가셔브룸이 생각날 것 같고요(하하)."

김씨는 등정 성공의 공을 김미곤씨에 돌렸다. 김미곤씨는 손가락이 없어 캠프 설치나 취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배 김홍빈씨의 손이 되어 극한 상황을 함께 이겨냈다. 하나의 모자람을 둘로 극복했던 것이다.

자일파트너 김미곤씨 있어 극한 상황 이겨내

김씨의 다음 목표는 내년중 에베레스트(8천848m) 등정. 최종 목표인 '7대륙 최고봉 등정'의 일부로 그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5천895m), 남미 아콩카구아(6천962m)를 올랐으며, 에베레스트와 남극의 빈슨매시프(4천897m), 오세아니아 칼스텐츠(4천884m)를 남겨두고 있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번 등정을 통에 얻은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가셔브룸 정상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히말라야 가셔브룸Ⅱ 등정에 성공한 김홍빈(사진 오른쪽)씨와 김미곤씨가 14일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친지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노벨 문학상 그라스 "나치 복무" 고백

"너무 늦었다·가소롭다" 비난 목소리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귄터 그라스(78)가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 친위대에서 복무한 사실을 인정한데 대해 매서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그라스는 지난 수십년간 영향력있는 좌파 평화주의자로서 나치 시절에 대한 비판 외에도 외국인 혐오와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1959년 처녀작'양철북'을 출간해 세계적 명성을 얻은 그는 1999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 독일 문단에서는 현존 최고의 작가로 대우를 받고 있다.

독일 언론들은 그의 전력이 드러나자 다양한 용어를 동원해가며 그라스가 도덕가, 성인군자인 체 한 사실과 뒤늦게 과오를 고백한데 대해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에서는 그라스가 노벨문학상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예일대 음대 교류 확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사진 오른쪽〉은 14일 종로구 신문로의 그룹 사옥에서 내방한 로버트 블록커(Robert L. Blocker) 예일대학교 음악대학 학장과 환담을 갖고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예일대 음대간의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교류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이들아! 광활한 우주의 꿈 펼쳐 보렴"

"돈이란 덧 없는 것 우주에서의 내 위치를 알아야…"

사재 털어 국내최대 천문대 짓는 한일철강 엄춘보 회장

평생을 철강산업에 종사했던 원로 기업인이 말년에 자신의 사재를 털어 천문대 건립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견 철강업체인 한일철강의 엄춘보(87)회장이 주인공이다.

1919년 3월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그는 해방 후 월남해 한국전쟁을 맞아 부산에서 잠시 피난생활을 한 뒤 상경, 전후 재건사업에 뛰어들었다.

국영 대한제철의 특약점으로 철강업계에 입문한 그는 1957년 자신의 회사를 차려 특유의 근검절약 정신으로 5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오늘날의 한일철강으로 키웠다.

팔순을 넘긴 어느날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돈이란 것이 덧없구나' 하고 깨달은 그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광활한 우주 공간으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천문대를 세우게 됐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장흥유원지 내 계명산 중턱에 자리잡은 천문대는 연면적 45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내 기술로 만든 60㎝급 리치-크레티엥 방식의 반사 망원경과 다양한 방식의 보조 망원경 7종을 갖춰 올해 말 개장 예정이다.

천문대를 찾는 아이들에게 별자리 관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우주비행 시뮬레이터인 챌린저센터, 실제 밤하늘을 돔 스크린에 구현한 플라네타리움 등의 부대 시설까지 갖추게돼 애초 130억원이었던 공사비가 두 배가 넘는 300억 가까이 늘어났다.

엄 회장은 "만화나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는 아이들이 망원경으로 해와 달을 보면서 우주에 관한 꿈을 키워 다가올 우주시대의 개척자로 자라나길 바란다"며 노년의 소망을 내비쳤다.

줄리 델피, 새 영화 '파리에서의…' 에서 1인3역 맡아

배우 출신이면서 시나리오작가, 감독으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줄리 델피가 새 영화 '파리에서의 이틀(2 Days in Paris)'의 시나리오, 감독, 주연 등 1인3역을 맡는다.

지난해 '비포 선셋'으로 감독 리처드 링크레이터와 공동으로 아카데미상 시나리오상 후보에 올랐던 델피는 시나리오를 단독으로 썼으며 연출과 동시에 주인공 매리언 역으로 출연한다.

델피는 '비포 선셋' 이전에도 2002년도 작품 '지미를 찾아서'의 공동각본, 연출, 편집 및 제작 등 1인4역을 맡았으며 '파리에서의 이틀'의 편집도 맡을 예정이다.

"낡은 종이로 추상작품을 만들어 내는 한국인"

NYT, '한지 작가' 전광영씨 작품 소개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만진 사람들의 영혼이 담겨있는 종이로 만든 작품"이라며 '한지 작가' 전광영씨의 작품 세계를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낡은 종이로 조용히 추상 작품을 만들어 내는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씨가 "오는 9월 7일부터 21일까지 맨해튼 20가 첼시의 킴 포스터 갤러리와 79가의 미셸 로젠펠드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가 지난 3년 동안 버려진 한국의 옛 서적 등 2만권 이상의 책을 매입, 냉방시설이 된 창고에 모아놓았다면서 그가 책을 산 것은 내용을 읽으려는 게 아니라 뽕나무 잎으로 만든 수제 종이를 모으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어떤 것은 100년이나 된 작은 종이들이 모여서 지난 20년간 그의 작품 세계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전씨가 여러 세대의 손때가 묻은 낡은 한지를 사용해서 작품에 영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씨는 "나는 새 종이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에게 있어서 낡은 종이는 인생이요, 역사"라면서 "종이에는 그걸 만진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있고, 따라서 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더 잘 알게 됐고, 그 이후 한지를 이용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전씨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결과로 나타난 미가 아니라 작업 자체의 무형적 측면"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벽과 문, 창문 등 과거 한국의 집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한지 조각 수천, 수만 개를 모아 입체적 회화로 표현해 오면서 '한지 작가'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김용환(광주시 환경녹지국장)씨 장남 호현군 최양동씨 장녀 선혜양=18일(금) 오후 7시 에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구국서씨 장남 태석군 박행용(변호사·전 광주지방법원장)씨 장녀 혜진양=19일(토) 오후 5시 서울 힐튼호텔(남산) 그랜드볼룸.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광주대 평생교육원 자연법칙 지리풍수학 무료 시민 공개 강의=19일(토), 26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대 중앙도서관 5층.장묘법, 음·양택, 수맥, 유산록 등 소개. 011-609-8117

▲장익호 지리풍수학회 무료 공개 강좌=19일(토) 장흥군 사회복지관,26일(토) 호남대 쌍촌캠퍼스. 오후 2시부터 6시. 풍수지리 천년의 허와실 영상 강의 등.011-608-4088

동창·동문회

▲광주 효동초교 32회 동창회 월례회=16일(수) 오후 8시 우산동 화니콩나물 삼겹살.523-2550

▲순창 금과초 제 41회 동창회(회장 김형우) 모임=19일(토) 오후 5시 강천사 약수산장.011-680-6075

▲광주상고 12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모임=19일(토) 낮 12시 담양 추월산 태웅산장.018-643-9200

종친회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청년이화회(회장 리진우) 월례회=16일(수) 오후 7시 광주전남도지원 회의실.

모집

▲제 14기 광주시민예술대학 수강생 모집=8월30일부터 9월25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12시 강의. 국악·무용·문학·미술·연극·연예·음악·건강·민속·교양 등으로 누구나 가능. 원서 교부는 15일부터 30일까지. 전화 접수 가능. 528-9207

▲광주대 평생교육원 신체 교정 모집=31일까지. 30주 과정 수료 후 자격증 취득. 226-9657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가사도우미 무료훈련생 모집=여성 대상으로 훈련 기간은 9월11일~15일까지.

▲금호교육문화회관 제 22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어학·교양·음악·컴퓨터·서화·국악 등 39개 강좌 수강생 모집. 접수는 25일까지. 문의 360-6631~6.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동운철학원 역리철학 수강생 모집=매주 3회 6개월 과정. 명리학·풍수지리학·성명학. 376-9396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홈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화훼장식 국비교육생 모집=만 40세이상. 매월 11만원 수당 지급. 문의 (재)연세직업전문학교 264-4300,4305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전맹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과정·뇌병변 특화과정·프로그램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비 무료. 기숙사 등 편의 제공. 문의 061-320-7051~5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좌 수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홈패션·커튼·퀼트·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죽공예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쌍촌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와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 431-0035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뒤(구.호전)
대표:(062)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 특별분양
분양문의 (062)521-1100